

한·미의 문화적 패턴에 의한 상호의사 소통의 상이점

— 가정과 가치기준 —

교양 과
전임강사 서 재 돈

I. 서 론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그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언어불통이나 문화적 가치기준으로 생기는 심미적 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심미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각국의 사고방식과 문화양식을 인식해야만 할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 서간의 문화적 패턴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있으며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pattern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과 가치기준의 차이를 살펴 본다.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어느 정도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두 언어사이에 놓여 있는 사고패턴과 문화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에서 간접, 직접으로 체험한 문화적 충격은 크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자기 문화권의 규범이 자기의 몸에 무의식적으로 체제화되어 습관화됨으로 문화패턴과 문화의식이 다른 문화권에서 심적 충격과 갈등을 받게 된다. 이 때 문화적 상이점과 그 문화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자기의 문화권이 갖는 가치성과 특성은 다른 문화권과 접할 때 함축성 있는 의미를 터득하게 된다. 그 때마다 자기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어떤면에서는 긍지를 갖고 보존하고 계발하려는 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한국의 문화권은 「가족의식」과 「집체의식」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충효사상, 한국민의 인정미등은 좋은 이면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너무 감상적인면에 치우치다 보니 이성적 판단능력이 없고, 형식주의, 공사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이해 여하에 따라 모든 일이 좌우된다. 한국국민들이 주체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과 접촉함으로써 얻어진 비평인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역사를 통해 사대주의와 당파 싸움을 배워왔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녀야 할 단결력이 부족하고 눈치만 쬐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민중사회에서 보다는 특수계급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원동력을 일반민중에 두고 있다. 율타림씨는 「한국에 있어서 민중은 판권에 짓밟혀 역사의 전위대 역할은 권력을 가진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

해져 왔다」¹고 말하고 있다. 우리 역사는 이조 500년의 통치와 유교정책은 지나친 형식주의와 왕권의 카리스마적 권위만을 앞세우고 정권을 장악하여 부를 축적하는 경향이 많았다. 물질문명이 발달된 미국의 문화는 Puritanism적인 정신과 생활태도에서 검약과 소박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동부와 남부는 청교도적 생활을 바탕으로 근면성과 검약성이 있고, 소박하면서 준엄한 생활태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나라의 문화는 역사, 신화, 전설, 신학, 종교적인 제도, 문학, Drama, 풍습, 예술, 심미적, 교육적 배경, 국민의 사고, 가치관을 가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 민족의 사고패턴은 그 민족이 지니고 있는 풍토에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동일 문화권에서도 사람에 따라 한 언어가 주는 뜻과 반응도가 달라진다. 각 문화권도 환경의 특수성과 독특한 사고양식에 의해 언어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문화일수록 다른 언어와 상응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한 국가의 Cultural assumptions와 value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편의상 이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문화적 패턴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문화적 패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본가정이 필요하다. 한 행동의 특성은 다른 행동의 특성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문화와 문화의 차이를 서술할 때 한 문화권에서는 문화적 기준의 여러 가지로 달라짐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미국사회에는 수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다원성을 지닌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문화의 기준을 지역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미국의 동, 남부에서는 귀속사회(Ascriptive society)나 공동사회(Gemeinschaft)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며, 개인의 품위, 개인의 신분까지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의 각 계층사람들은 저마다 문화적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do's)」과 「해서는 안 될 일(don'ts)」을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문화권과 문화권사이에 비교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그 나름대로 대표할 수 있는 지배적 문화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사람들은 「work」와「play」에 대한 리듬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또한 그들의 시간 개념의 정확성은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한국인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pattern인 것이다.

문화권마다 가치기준이 다르므로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공동사회를 바탕으로 하며, 미국사회에 비해 가족관계나 신분같은 것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미국 중류사회의 지배적인 특성은 개개인의 성취업적이 주가 된다. 여기서는 미국의 사회계층의 골격

¹ 윤태림., 한국인, 서울 현암사, 173(1970)

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이 갖는 문화패턴의 정규와 한국의 그것과, 한·미의 문화적 패턴에 의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를 가정과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II. 행동양식에서 온 차이(The difference from active patterns)

미국사회에서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인 처럼 운이나 우연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한계가 뚜렷하여 자기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다.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행동지향적인 사고방식은 미국사람들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미국사람들은 결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는 자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려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코델과 와인스타인은 생후 3,4개월 된 일본어린이와 미국어린이 각각 30명씩을 상대로 어머니와 상호작용과정을 연구 분석하였다. 미국어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잠자리를 달리 하며 어머니와 피부접촉이 적고, 욕구불만은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발산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본어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6세 될 때까지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피부접촉이 많아 아기의 필요욕구가 어머니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말 보다는 정적인 침묵으로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면으로 적응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문화권에서는 자기의 필요 욕구를 직접 입으로 해결하는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방식은 자기주장적 의사소통방식, 정면지향적 의사소통방식, 도구적 의사소통방식을 취하여 verbal communication이 발달되고 한국과 일본 문화권에서는 인간 상호작용에서 비교적 내용보다는 감정이나 분위기, 또는 그때 그때의 상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방식은 감정지향적 의사소통, 분위기지향적 의사소통, 부분적, 간접적 의사소통방식을 취하고 있어 nonverbal communication이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다.²

미국어린들의 행동편향성 경향은 국민학교 교육에서 더욱 더 조장되고 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장해야만 한다는 동양의 윤리와는 달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결정해 실천에 옮기도록 교육을 받는다. 부모님들은 평등한 관계의 상대방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를 떠나 완전히 독립된 미래의 미국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격려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어린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복종심은 희박해지고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문제해결을 하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강해지게 된다.

어떤 일을 의논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은 자기가 직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미국사람들은 심미적 판단(aesthetic judgment)을 내리는 데에

² Caudill, W. and Weinstein, H;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 and America. Psychiatry.*, 32, 12~43, (1969).

도 개인의 기호나 취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개인적인 기호를 무시한 예술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평가기준은 미국사람들이 싫어한다. 미국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어서 본인이 좋으면 좋다는식이다.³ 또한 “외적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기호나 선택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는 미국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서구 어느나라 사람보다 강하다”고 Glenn는 말했다.⁴ 미국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고 대화를 한다. 이것은 모든 행동의 원천이 자기중심적인데서 출발한 기독교적인 개인주의에 그 근거를 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국민들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나」보다는 「가족」, 「우리」와 같은 집단의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유교윤리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겠다.

유교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문화권에서는 의사결정이 유교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다소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간섭하고 자식의 의사를 지배하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부모님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다. 이런 행동양식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상호의사소통방식의 차이점이 생기게 된다.

Ⅲ. 과반수의 법칙과 만장일치의 법칙에서 온 가치(Values from majority rule and unanimity rule)

미국사회는 개인의 사고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유교사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모든 모임의 진행절차와 의사일정 혹은 투표절차는 다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절차는 비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자기의 발언권이 공정하게 행사된 투표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수표에 승복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TV를 통해 볼 수 있다. 투표 전날까지 대통령후보자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당의 정강정책을 명백히 밝히면서 열띤 언쟁을 벌이다가도 국민의 심판에 복종하며,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의 키스를 보내며 승자는 기쁨과 환희에 웃음을 띠우며 축복을 보낸다. 다수표결에 의한 지배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국사회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없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뿌리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니고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다수파는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여

³ Rogers, Carl H; Toward A modern Approach to Valu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8, No. 2, 160~167 (1964).

⁴ Glenn, Edmunds; Semantic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ETC*, Vol., 11, No.3, 163~180 (1954).

어떤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소수파와 타협을 보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모임의 회장을 선출할 경우 참가자 전원이 각자의 의견을 공정히 반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핵심인물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사람을 지명하여 확인을 얻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수에 의한 소수지배에 익숙치 못한 동양사회에서는 패자의 체면이 문제시 되고 있다. 체면은 정신적, 물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낮이 말 아니다」 「체면을 좀 생각해 줘야지」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앞세우며 저마다 명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의 투표는 민중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서로의 체면을 생각해서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이 보통이다. 주로 체면은 남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자기의 의견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려는 의타적인 현상이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사결정의 소재는 자기에게 있다고 보고 모든 동기여부도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Who did this?」 「Who is responsible?」과 같은 말 속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소속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인화와 유대감을 강하게 의식해서 투표에 의한 대결이 아니고 만장일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소수표와 다수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사람들 전 의체 마음을 헤아려 승자 패자가 없는 통일된 의견일치에 도달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Kerling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code calls for the group to reach decision together almost by a sort of empathy. The function of a chairman is, therefore, not to help people express themselves, freely but to divine the will of the group, to express its will and state the decision reached.....presumably on the basis of devined will. This ability of the chairman is called haragei(belly art)⁵.

어떤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오히려 경솔한 것이다. 자기의견을 행동의 방침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권유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말한다 하더라도 우회해서 완곡한 표현을 한다.

Doi씨는 일본 사람들이 일상 의사소통에 있어 말을 중단하고 종종 침묵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일본어의 「ame」(일본인 특유의 어리광)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사람들은 일상

⁵ Kerlinger, Fred N. "Decision-Making in Japan." Social Forces, No.30, October, 38 (1951).

대화 마디마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인간 관계에 스며드는 분위기에 온갖 신경을 쓴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일본 사람과 흡사하다. 이 처럼 서구 사람에 비해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인간 관계에 치중하는 분위기라든지 침묵과 같은 「nonverbal elements」를 대화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과정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일본이나 한국 처럼 인간 상호 작용에 있어 분위기나 감정 내지 인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침묵은 positive meaning을 갖지만, 미국처럼 행동 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침묵은 말이 없는 것으로서 시간 낭비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사회에서는 「decision-making」과 책임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칭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한국과 일본사회에서는 「decision-making」과 책임과의 관계는 비대칭적 또는 불균형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ecision-making」과 책임과의 관계가 분명함 미국에서는 소수파, 다수파에게 승복하는 「majority rule」에 적용되며 「decision-making」과 책임과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형식과 인화 같은 것이 중시되어 「unanimity rule」이 적용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다.

IV. Doing과 Work, Being과 Play의 개념적 차이(The Conceptual Difference of Doing and Work, and Being and Play.)

미국인의 세상에 대한 개념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우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험만 가지고는 어려운면이 있으므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준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은 훈련과 교육, 어떠한 지식도 응용성과 실용성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합리주의는 항상 수단편향성(means-oriented)이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을 둔 통계숫자나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한다. 합리주의적인 실용이란 시시각각으로 적용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므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미국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거절한다. 미국 사람들은 물질적 세계를 합리주의적인 문제해결자라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중심적인 수단편향적 사고 방식은 일종의 조작주의로서 너무나 방법편중적이어서 비서구 사람들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문제중심으로 보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행동편중성향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직장생활은 한가하지 않다. 짜여진 schedule에 의해 빈틈없이 일하고 있다. 근무중에는 좀처럼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측정 점검하고 있다.

미국의 기계적인 합리주의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인간적인 배려보다는 분야별로 업적상태에 따라 사람을 세분화 해서 평가한다. 따라서 귀속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압력과 권위로서 자리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자기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 사회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리 바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의 집무체제는 신분, 지위, 자리에 따라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pyramid식이 아니고 권력과 계급을 배제한 성취능력을 위주로 하는 diamond식이다. 미국 사회는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있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언저라도 자리가 바뀐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입장에 맞추어 일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근무시간이 끝나면 완전히 개인적인 개체로 돌아간다.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부여된 일만 충실히 하면 그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난다.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사회는 개인을 정적 상태에 두지 않고 동적인 상태로 만든다. 인간적 배려가 없이 문제중심으로 처리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인간이 소외 당하는 것 같은 비인간화의 느낌은 어찌할 수 없다. 미국과 같은 비인간화된 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정을 주는 정실주의나 족벌주의가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주의와 합리주의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에 따라 처리되는 인본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집단에서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공정심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화가 특징인 한국 사회보다는 기계적이고 비인간화된 미국 사회가 대인관계에 있어 객관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생활은 동적인 생활임으로 인사말에 나타나 있다. 「How are you Doing?」 「I'm **Doing** fine」 속에도 doing이라는 말이 속출하고 있다. 「doing」이 아니라도 항상 움직이는 「How are you **Coming Along**?」와 같은 표현이 있다. F. Kluckhohn

은

...Its most distinctive feature is a demand for the kind of activity which results in accomplishments that are measurable by standards conceived to be external to the acting individual. That aspect of self-judgment or judgment of others, which relates to the nature of activity, is based mainly upon a measurable accomplishment achieved by acting upon persons, things or situations. What does the individual do? What can he or will he accomplish? These are almost always the primary questions in the American's scale of appraisal of persons.⁶

미국 사람들의 행동지향성인 특성은 Play와 Work를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에서 볼 수도 있다. Work와 Play에 대한 리듬이 체질화되어 있다.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한국 사람

⁶ Kluckhohn, Florence R. Some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Cultural Intergration and Change, in Sociological Theory Values and Sociocultural Change: Essay in Honor of P.A. Sorokin, E.A. Tiryakian (ed), Free Press, New York, 17 (1963).

에 비해 미국 사람들이 강하고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 사람에 비해 한국 사람이 강한 것 같다.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부 달라질 수 있다.

Hall과 Whit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Latin America the American who calls upon a business-man encounters difficulties in expeditiously concluding his agenda. The Latin makes the meeting into a social event and, hence, does not feel compelled to be brief and business like in his conversation⁷.

공식적인 회의 일수록 간단 명료하고 사업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다.

Doing과 관련된 미국의 문화적 전제나 가치기준이 그대로 다른 문화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솔선수범 일을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남의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이고, 능력이 있어 과감한 행동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일하고 움직이는 철학 밑에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현재의 일이 힘들고 고달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미래에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다. 오로지 진보를 위한 변화만 있을 뿐이다. 꾸준히 노력하고, 일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과거의 야심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가능이 없고 성공만을 기대하는 낙관론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에 차 있다.

미국의 진보적 낙관론들은 기계문명이 물질적 환경을 정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진보란 모든 육체적 안락, 질병에서 부터의 해방, 물질적 풍요, 수준높은 생활을 의미한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현대과학의 발달로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유는 미래를 내다 본 인과관계에 의해 현재의 상황과 행동에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이며, 감기와 같은 질병은 피로나 영양실조로 인해 쇠약해졌다는 신체의 생물학적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건강과 병을 분리하여 생물학적 구조의 상태로 생각치 않고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병이 나면 마귀가 붙어있다 하여 굿거리를 하는 경우를 시골에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문화권에 대해서 Erasmus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Ethiopia, an American reports that a sick child grinding his jaws is looked upon as a sign of the evileye while another writer says that in a

⁷ Hall, Edward T. and Whyte, William 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Guide to Men of Action, Human Organization, Vol., 19*, No. 1, Spring, 5~12. (1960).

Latin American republic, symptoms of malnutrition are often ascribed to "supernatural and other causes which bear little or no resemblance to Western medical explanations⁸".

인간과 자연의 세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Steward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 village may continue to draw from a contaminated pond because it is the habitation of a water spirit that would be vengeful from jealousy if the people were to use another source of water. And, among some of the Arabs, it is very difficult to clean up water contaminated with typhoid. Clean water is not desired with typhoid. Clean water is not desired water by the Arab, who prefer the strong taste given to the contaminated water by the camels,⁹

V. 시간 개념에서 온 차이(The difference from the concept of time)

미국 사람들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가치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조직적 가치체제에는 시간관념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동적 상태로서 과거를 기점으로 하여 미래로 곧장 치달는 흐름인 것이다. 「Time moves fast.」 「You've got to keep up with the times.」라고 미국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간에는 여러가지 순간을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의 순간은 행동의 원인이 되며, 다음 것은 행동의 결과가 된다. 이런 것은 인과관계법칙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물질문명의 환경은 인과관계에 뒷받침되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사회속에 문제시 되는 것은 개인의 역량인 것이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하면, 항상 인과법칙에 따라 물질적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Times is gold.」 「Time is money」라고 흔히 말하고 있다. 시간은 곧 모든 문제 해결에 key가 된다는 사고방식을 믿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간감각과 시간엄수에 대한 교육이 동양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의 낭비가 죄악시되는 사회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몇 시쯤」 「내일 저녁 너의 집에 갈 것이야」이라고 막연한 시간개념을 사용

⁸ Erasmus, Charles J. An Anthropologist Looks at Technical Assistance. in Redings in Anthrology Vol. 11, Readings in Culture Anthropology, Morton H. Fried (ed), Thomas Y. Crowell, New York, 390 (1959).

⁹ Erasmus, Charles J. An Anthropologist Looks at Technical Assistance in Readings in Anthropology, Vol. 11, Readings in Crowell, New York, 390 (1959).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몇 시」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약속을 한다. 타인의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간감각이 발달한 구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한 시간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하는 monochronic concept of time의 입장을 취하며 「First come, first served.」은 모든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것이며, 버스를 탈 경우, 어떤 순서를 기다릴 때도 자기만 먼저 앞서려고 하는 법이 없이 질서정연하다. 동양인의 시간은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polychronic concept of time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에 속한다. 이런 사회는 정적이기 때문에 미래 보다는 현재 지향적이어서 시간감각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 사람들은 정확한 거리와 소요시간을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계산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말이다. 온 백성, 온 천지 등의 「온」은 겨우 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수에 대한 개념은 희박하며 시간에 대한 뚜렷한 의식도 없다.¹⁰

한국인에게는 가족과 마을을 떠날 때는 늘 불안을 느끼며 미래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안정감, 확실감을 느끼며 새로운 것과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사색과 도전을 하는 것 보다 조상을 생각하며 과거에 대해 집착심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세분화된 시제를 갖고 있는 유럽어들은 동양언어에 비해 시간개념이 발달되어 있고, 인간관계를 항상 어떤 서열 속에서 생각하는 동양어는 유럽어에 비해 존칭법이 발달되어 있다. 영어의 시제는 현재·과거·미래 등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동작의 완료·진행에 따라 동사의 시제를 더욱 더 세분화시켜 나간다. 이에 비해 우리말에는 동사의 시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본 시제는 과거와 비과거(또는 완료와 미완료)의 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했니?」 하면 과거(또는 완료)를 지칭하며 「뭐 하니?」 하면 비과거(또는 미완료)를 지칭한다. 후자는 현재나 미래 시제에 다 같이 사용되어 「지금 뭐하니?」 하면 현재의 일이며 「내일 뭐하니?」 하면 미래의 일을 가리킨다. 한국말의 과거도 영어의 과거와는 그 개념이 상이하다. 「밥을 먹었다」 하면 과거에 먹은 것인지 지금 막 밥 먹기를 끝마친 현재완료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 우리말에서는 과거와 현재완료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

시제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시제가 세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가령 미국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은 한국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미국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인과관계의 원리에 따라 자연환경을 정복해서 물질적 부를 누리며 동양의 시간 관념은 자연환경과 융화하는 것이다. 월쉬(Walsh)는 동양이 서양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화합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¹⁰ 윤태립, Hankukin (The Korean), Seoul: Hyon Am Sa., 218 (1970).

¹¹ Trudgill, Peter.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London: Penguin., 25 (1974).

동과 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동의 화합, 서는 힘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에서는 지식은 자연과 인간이 좀 더 바람직하고 밀착된 화합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서에서는 지식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동에서는 화합을 어지럽히는 것은 무엇이나 나쁜 것이 되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서에서는 힘으로 가능한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왔다.¹²

미국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날카롭지만 한국인들은 미래보다는 정적인 과거에 애착을 느끼고 있다.

VI. 귀속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Human relations in the ascriptive society and individualistic society)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서구의 개인주의는 모든 행동의 원천을 자기로 부터 시작하는 개체의식을 발달시킨데 비해, 유교의 가부장적 윤리에서는 행동의 결정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중심적인 집체의식이 발달했다.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주체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I」, 「me」, 「my」와 같은 표현을 즐겨 쓰며,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데 이분법(dichotomies)을 사용한다. 「I」와 「You」, 「My group」과 「Your group」을 구별하며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 이런 습관이 미국 사람들의 「privacy」에 벽을 두절해 했는지 모른다.

자신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나」 대신에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개체정보보다는 집체성에 젖어 있는 것이다.

행동 편향성이 특징인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자기로 부터 출발하지만, 정적인 것이 특징인 귀속 사회에서는 자신의 동기나 능력보다는 집단에 대한 의무, 충성과 의리가 중요시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권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권위가 개인의 행동을 속박하지는 못한다. 미국사회에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귀속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국가나 정부의 권위가 앞서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와 정부를 혼동해 정부의 권위가 곧 국가의 권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Wittfogel, Karl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societies with more or less absolutist governments, political power

¹² Wash, John E. Intercultural Education in the Community of Man (An East West Center Book). Honolulu: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83 (1973).

is not checked by non-governmental forces found in most Western countries. Historically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 the West has been limited by constitutions, large individual land-holdings, and political, cultural and organizational subdivisions. In absolute government, these checks are generally not present or not effective. Religious and military power are normally both identified with the state and do not place a check on the government.¹³

구미제국들의 권위가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정부의 권위의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비대해진 정부의 막대한 권위는 개인을 무기력하게 하고 존중과 명중을 강요하고 있다. 귀속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나 가치와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집단의 권위가 앞서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수평적이지 아니라 수직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The people usually have little love for the government and its representatives. The society is clearly demarcated into the ruled with the government.¹⁴

귀속사회 특히 유교권 동양사회는 권위 사상이 머리 속 깊이 박혀 있다. 유교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잘 순응하는 편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권위에 의한 인간 지배를 배척하기 때문에 귀속 사회처럼 직위나 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는 권위적인 수직관계가 아니고 평등에 의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즉 미국은 인간관계가 수평적 이분법에 의해 형성되고 있지만 귀속 사회에서는 수직적 이분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평등한 인간관이 아니고 종적 관계로 보는 불평등한 차별적 인간관이다. 여기서 개성이 뚜렷하게 형성될 수 없고 자아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지위와 연령에 따라 존경심과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눈치」라는 것이 발달해 왔다.

「눈치」는 한국적 문화,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즉 「눈치」는 ①남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남을 자기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②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희생하는 미덕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③자기 희생의 숭고한 정신보다는 무기력과 굴

¹³ Wittfogel, Kar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49~100 (1957).

¹⁴ Wittfogel, Karl. *ibid.*, 156.

중을 의미하는데 더 강하다.

한국에서는 연령과 직위에 따라 존칭법과 대우법이 형성되고 있다. 유럽어와 달리 한국어와 일본어는 사람을 세는 말과 새나 생선을 세는 말이 다르다. 한국말은 닭 같은 것을 셀 때는 한 수, 두 수, 생선은 한 마리 두 마리로 셀하지만, 사람은 연령과 신분에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한 분, 두 분 또는 한 놈, 두 놈으로 셀한다. 그러나 유럽어는 하나, 둘로 셀한다.

말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대우법을 사용할 정도로 상대방의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린다.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동사의 접미사를 붙인다. 친숙한 사이에서는 「-나」나 「-네」를 붙여 「자네 학교에 가나?」 혹은 「나 학교에 간다」라고 하고, 공손한 표시로는 「-요」를 붙여 「그는 학교에 가나요?」라고 하고, 존재 표시는 「-읍니다」를 붙여 「그는 학교에 갔읍니다」라고 하고 명령적인 일 때는 「-오」를 붙여 「그는 학교에 갔었소」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따라 하대나 경칭을 표시하는 동사의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한국말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없어도 대화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Where are you going?」에 대한 대답은 연령에 따라 그 대답이 각각 다르다. 청년층은 「(나는) 학교에 간다」, 성인인 「(나는) 학교에 가야」, 장년기는 「(나는) 학교에 가네」라고 대답한다.

또한 우리말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격이 「나」, 「저」, 「소인」 따위의 겸손어로 변해 나가며 「나」를 기준하여 상대방을 「어른」, 「당신」, 「자네」, 「너」의 등급으로 상대 대우법을 쓰고 있으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세분화된 응대법이 없다. 「thou」와 「thee」는 「you」와 병용해서 써 왔지만 「you」보다는 「thou」나 「thee」가 좀 더 우위적인 계층적 의미를 갖는 말로서 「하나님」이나 아직 친숙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대」라는 의미로 쓰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개념에 어긋난 것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식에 까지도 「thou」를 쓰지 않고 「you」만을 쓰기에 이르렀다.

신분 차이가 없는 미국 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솔직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동부와 남부에서는 손윗 사람에게 말할 때 「sir」를 붙이지만 한국 말처럼 하대말과 존대말은 없다. 영어 「you」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충분하지만, 한국말에서는 너·자네·당신·그대·댁·어른·임자·영감·나리·각하·선생·귀하·귀공 등으로 나누어 상대방을 섬세하게 세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말은 신분, 계급관계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야 하고, 그의 신분, 지위 등을 먼저 고려해서 처신해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¹⁵

인간은 자기 환경 내에서 인간의 특성을 존재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인간화는 한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적 가치기준에 따르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다.

¹⁵ 윤태림; Hankukin (The Korean). Seoul; Hyon Am Sa., 100 (1970).

VII. 말로써가 아닌 의사 소통에서 오는 문화적 양식의 차이 (The difference of cultural patterns from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 communication이 아닌 body motion인 손짓, 얼굴표정, 눈의 움직임, 눈썹 치켜 올리기, 어깨 으쓱하기, 입의 모양, 몸 자세의 변화 등, Kinesics영역을 비롯해서 음질의 변화, 웃음, 미소, 하품, 투덜거리기 등 말 소리가 아닌 Paralanguage 이의 피부 접촉, 색깔, 의복 및 화장 등에 이르기까지 말로써가 아닌 인간의 모든 의사전달 방식으로서 문화권 마다 각각 다른 문화적 양식이 있다.

한 언어의 음운학적, 어휘적, 의미론적 내지 문법적 난이성을 극복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문화권에 깔려 있는 음질의 변화인 템포나 음역, 음량과 같은 말이 아닌 소리인 Paralanguage를 떠나서는 노여움, 놀람, 유모, 슬픔, 의혹 등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감정은 말 자체속에 담긴 것이 아닌 말 밖의 요소인 Paralanguage나 키네식스에 의해 전달된다.¹⁶

Paralanguage현상은 미묘한 것이어서 울음과 같은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의미가 비슷하나 웃음은 그렇지 않다.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 사이에 웃음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양 문화권의 문화적 가치에 오해가 생긴다. 몸 동작이나 음질의 변화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문화권 마다 문화적 양식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말 소리만 듣고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의복과 특징만으로도 어느 민족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요사이 한국 말에는 근육을 긴장시켜 딱딱한 감을 주는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즉, 「꽃」→「꽃」. 가치」→「까치」, 「상놈」→「쌍놈」, 「고가도로」→「교까도로」로 발음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시골 사람보다 도시 사람들에게 더 심하며,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spoken language와 body language를 배우게 되며, 미국의 어린이들은 말에 의존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내향적인 한국 어린이들은 언어적 신체 메시지가 발달하게 된다. 이 때 인간은 사적 공구(私的空球)가 생긴다.(사적 공구란 자기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꼭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전체적인 간격을 말한다).

미국 어머니들은 자신들과 아기 사이에 육체적 거리를 두고 이 간격을 대화로써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¹⁶ Cammack, Flory M. and Buren, Hildebert Van. Paralanguage Across Cultures: Some Comparisions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ELEC Bulletin, 7~10 (1973).

인류학자 호울은 대화의 간격을 북미 사람들은 사람의 팔 길이 정도에서 약 4피트까지며 남미 사람들은 좀 더 밀착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아랍 사람들의 간격은 다르다. 아랍 사람들은 밀착된 상태에서 서로 쳐다보며 입김을 느낄 정도이지만 미국에서는 정교나 성교를 할 때 있는 것으로 거북스러운 느낌을 준다.

Nonverbal Pattern는 각 문화권마다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모르고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문화적 충격이 생기게 된다.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문화적 양식, 심리적 속성을 동시에 포함한다. 호울은 「의사소통이 문화요, 문화가 곧 의사소통이다」라고 말하였다.¹⁷ 이것은 자기 문화권 이외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곧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양식, 행동 양식을 익혀야 된다는 말이다. Nonverbal pattern에도 언어의 마찬가지로 각 문화권 나름대로 하나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손가락 놀림이 각 문화권마다 가치기준이 다르다. 가운데 손가락은 미국 문화권에서는 성을 암시하는 음란한 표시며,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돈을 의미하지만 서구 사람들은 「O.K.」, 「Good」, 「delicious」의 뜻이다. 엄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것은 원래 로마의 황제들이 투사들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운 패자를 살려주라는 표시로 사용해 왔고, 엄지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는 것은 패자를 죽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오늘날 엄지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때로는 「O.K.」,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영국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우거나 성공의 표시를 의미한다. 인도 어느 지방에서는 너무 무례한 표시이므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왕초, 상황에 따라 아버지, 회사 사장, 또는 직속 상관을 뜻한다. 운동 경기에서 우리 힘이 「최고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엄지 손가락을 올려 휘두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둘째 손가락을 휘두른다. 하와이에서는 「최고야」 할 때 새끼 손가락을 뻗어 휘두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애인을 의미한다. 또 미국에서는 사람을 이리 오라 할 때 손바닥을 위로 향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둘째 손가락을 상대방 쪽으로 향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이것은 한국 문화권에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며 명령적인 뜻이 된다.

인사하는 방법도 문화권마다 다양하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맞이 할 때에는 주먹으로 머리카락을 때리며, 북서 아마존 사람들은 뒤 어깨를 서로 가볍게 두드리고,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틀에 박힌 포옹을 하는데 한 번은 머리를 상대방 오른쪽으로 해서 등을 세 번 치고 다음번은 왼쪽 어깨로 해서 상대방의 등을 세 번 두드린다. 중동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친구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겨안고 키스를 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는 각도에 따라 두 사람의 신분관계가 나

¹⁷ Hall, Edward 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day.*, 93 (1959).

타난다. 이 처럼 문화권 마다 말로서가 아닌 의사소통에서 오는 문화적 양식의 차이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 배경이 같은 두 사람사이의 Communication은 말과 몸 동작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일어나지만 배경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 언어 리듬을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의 리듬은 물론 이 언어의 리듬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nonverbal patter의 리듬도 익혀야 하며 문화적 양식의 차이도 익혀야만 한다.

VIII. 결 론

지금까지 한·미간의 문화적 패턴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문화라 함은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실세계로 자기 방식대로 체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개인은 그들이 갖는 체험이 서로 다르고, 또 각 문화마다 중시하는 체험적인 면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한 문화의 연구는 한 국민의 심리, 심마안, 국민과 사물과의 관계, 정치와 군대조직, 경제적, 윤리적 패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풍습과 전통, 편견과 이상, 신앙과 도덕 또는 예의 범절 등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한 문화의 가치는 한 개인과 같은 것이므로 그 나라의 문화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문화도 다른 문화와 경쟁을 함으로써 범 세계적인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문화의 독창성을 보존하면서 하나의 범 세계적인 문화 대열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각 문화권 마다 문화적 패턴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문화권 이외에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다.

參 考 文 獻

1. Caudill, W, and Weinstein, H;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 and America. (1969).
2. Glenn, Edmunds; Semantic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ETC, 1954).
3. Rogers, Carl H; Toward A modern Approach to Valu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4. Kerlinger Fred N; Decision Making in Japan, (Social Forces, 1951).
5. Kluckhohn, Florence R; Some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Cultural Intergration and Change, Free Press, New York, (1963).
5. Hall, Edward T. and Whyte, William 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Guide to Men of Action, (Human Organization, 1960).

6. Erasmus, Charles J; An Anthropologist Looks at Technical Assistance (New York, 1959).
 7. Trudgill, Peter; Sociolinguistic, (London Penguin, 1974).
 8. Wash, John E; Intercultural Education in the Community of Man,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3).
 9. Wittfogel, Karl; Oriental Despotism—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 (Yale Univ, Press, 1957).
 11. Commack, Flory M, and Buren; Hildebert Van; Paralanguge Across Culture, Some Comparisions,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ELEC Bulletin, 1973).
 11. Hall, Edward 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1959).
- 가. 윤태림; 한국인 (서울현암사, 1970).

The difference of a Cross-Cultural Communication by Korean and American Cultural Patterns;

— Assumption and Values —

Jae-don Seo

G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 difference of Korean and American cultural assumptions and values.

In the dominant patterns of cultures throughout the world, it is found American culture usually lies at one end of the dimensions and the cultures of Korea occupy positions procee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 qualities which they value in person, but in comparison with middle-class Americans, the members of each of these societies place more stress on family and position in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individual achievement is usually valued above family relationships. In this respect (and in many if not most others..... as far as cultural assumptions and values are concerned) the American middle-class differs from most Korean culture group.

It is legitimate, therefore, to compare Koreans with Americans even though the Korean differs markedly.

1. The limitation of cause and effect about action is clear in American society and they take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action, but in Korean society the motivation of the action is made by family and community.

2. The American value of majority rule is not universal. The Korean rejects the majority voice in decision-making, which becomes binding upon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alike.

3. The assumption of doing and the value of being active are dominant patterns in American life.

Work is pursued for a living. It's what a man must do and he is not necessarily supposed to enjoy it.

Play, on the other hand, is relief from the drudgery and regularity of work and is enjoyable in its own right although many Americans engage in recreation with the same seriousness of purpose expended on work.

6. In the ascriptive society the motivation of action is limited by authority of a family, a nation and a group. On the other hand, in the individual society authority of a group and tradition is not affected in a personal.

7. All cultural circle have the difference of cultural patterns from nonverbal communication.